

373억원 투입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전남도 16개 시·군 21곳에 전국 1928억원 중 19% 확보 선진지 방문 현장 교육 등 준비

전남도가 올해 각종 산업단지, 폐선부지, 주요 도로변 등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미세먼지 발생 원 16개 시·군 21곳에 373억원을 들여 차단숲을 조성한다.

전남도는 다른 시·도보다 앞선 적극적인 차단숲 발굴과 국고건의 등 선제적 행보로 2021년 전국 최대 규모의 차단숲을 조성하는데 이어 올해도 전국 1928억원 중 19%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은 내실있는 사업 추

진을 위해 우수사례 대상지를 방문해 현장 교육을 진행하고, 실시계획 용역과 사전 행정절차 등을 준비하고 있다. 2022년 신규 조성 대상지는 ▲목포 대양산단 2ha ▲여수 울촌산단 2.5ha와 국가산단 1ha ▲광양 제철소 4ha ▲순천 해룡산단 및 울촌제1산단 등 6.1ha ▲곡성 오곡폐선부지 2ha ▲구례 양정 축산단지 1ha ▲화순 채광장 1ha ▲장흥 바이오식품단지 2ha ▲강진 칠량 농공단지 1ha ▲해남 구성지구 2ha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1ha ▲무안 남악철도변 3ha ▲함평 동함평산단 2ha ▲장성 황룡강 1ha ▲완도 완도항 1.7ha ▲신안 증도 4ha 등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도시숲은 미세먼지(PM10) 농도를 25.6%,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40.9%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ha의 숲은 경우 차 27대가 연간 내뿜는 168kg의 오염물질을 줄인

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연 6.2t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신안 등 규모가 큰 대상지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등록을 추진해 온실가스 감축 등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저감효과 기능이 우수한 다양한 수종이 어우러진 대규모 차단숲을 통해 맑은 공기로 순환·생산하는 도시의 허파 역할은 물론 도시민의 심터로서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메타세쿼이아, 후박, 홍가시 등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수종과 경관미를 보여주는 수종 등을 중심으로 정원형 힐링숲을 구상해 도민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팽생이모자반 양식장 유입 막아라

전남도 차단 시설물 시범 설치 수거체계 갖춰 피해 예방 만전

전남도가 팽생이모자반의 양식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 양식장 수산물 및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물을 시범 설치한다. 이는 지난 3일부터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팽생이모자반이 신안 자연면에 지속 유입된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긴급 수거·처리 및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바다의 불청객 팽생이모자반은 대규모 띠 형태로 이동해 연안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선박 운항 시 안전사고를 유발한다. 또 수산양식 시설 훼손 및 양식생물 폐사 등 2차 피해를 일으킨다.

지난해 신안과 진도 등 전남해역에 8618t이 유입해 양식장에 약 20억원의 피해를 줬다.

올 들어선 아직 큰 피해가 없지만, 겨울철 북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팽생이모자반이 서해안으로 유입한 것으로 예상되며, 기상 조건에 따

라 서해중부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해안가에 밀려온 팽생이모자반을 시군 공무원, 주민 등 수거인력을 동원해 신속하게 수거하고 있으며, 국립수산물학원, 도 해양수산과학원, 해경에서 예찰 결과를 해당 시·군과 어업인에게 전파하고 있다.

전남도는 팽생이모자반 대량 유입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단 시설물 자체 사업비로 도비, 군비 등 4억원을 확보해 유입 가능성이 큰 해역에 시범 설치할 예정이다. 시설물은 부유식 그물로 방지막에 모자반이 적체되면 여선, 청정선 등을 동원해 신속한 수거로 양식장 추가 유입을 막고, 시설물 훼손을 사전 방지할 수 있다. 신안에서는 빠른 시일 내 해양수산청과 공유수면 상 차단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시범사업 효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시설물 설치 해역을 확대하기 위한 2023년 국비를 확보, 주기적으로 대량 유입되는 팽생이모자반을 사전 차단해 양식장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 수거·처리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 스마트공장 보급 전문위원 간담회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가 전남지역 제조기업 스마트공장의 원활한 보급·확산을 위해 지난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전문위원 간담회에서 전남테크노파크는 도내 196개 선정 도입기업의 현장점검 진행 시 필요한 주요 보고서 양식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2022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예상 일정을 공유했다. 또 지난해 사업의 절차 문제점들을 논의한 뒤 올해 사업의 원활한 보급·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의견을 나눴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해 전남도와 22개 시·군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에 대한 총사업비 중 지방비 30%



를 추가 지원해 기업 부담을 완화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총지원금 273억여원으로 527개사를 발굴해냈고, 이 중 196개사를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

유동국 전남테크노파크 원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은 중소기업이 제조혁신을 이루고 기술기반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기술 전문위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용자지원 500억 투입

684건 시설·운영자금 연리 1% 지원

전남도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수산물 유통·수출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용자지원 대상 684건을 선정해 저금리 지원한다.

전남도의 농어촌진흥기금 용자 규모는 총 500억 원이다. 농지·농기계 구입, 시설하우스 및 저온 저장고 설치, 가공공장 신·증축 등 시설자금을 비롯해 포장 디자인 및 용기 개발, 종묘·종패·종자 및 농어업 자재 구입 등 운영자금을 연이율 1%의 저금리로 지원해 농어업인·법인의 소득증대에 보탬을 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원 규모는 농어업인의 경우 1억원, 농어업법인과 학사농업인은 2억원이다. 가공·유통·수출 사업자는 최대 10억원까지다. 사업 대상자는 1월부터 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사업 완공확인서를, 운영자금은 집행계획서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부받아 금융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금융기관인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은 대출 요건과 서류 심사 후 용자금을 지원한다.

상황조건은 사업내용별로 다르기 때문에, 시설 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부터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을,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부터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개관 10년 전남도립도서관 '도민 지혜의 숲' 역할 특출

전자도서관·복합문화공간 조성 3월까지 '남도를 잇다' 기념전

전남도민의 지혜의 숲이자 문화사랑방 역할을 특출히 해온 전라남도립도서관이 개관 10년을 맞아 '남도를 잇다' 미술작품 전시전을 개최한다.

지난 2012년 1월 개관한 전남도립도서관은 매년 '올해의 책'을 선정, 독서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다. 또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지혜의 숲 인문학 강좌', '북콘서트' 등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민의 문학적 소양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특히 도서벽지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며 지식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구석구석에 꿈과 희망을 전했다. 지역 도서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시군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함께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도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지역 대표 도서관으로 성장했다.

앞으로도 도서관이 도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문화공간이 되도록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도·시군 통합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 도서관 변화 트렌드를 반영한 '북카페 형태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그 시작으로 전남도립미술관이 소장한 남도 작가

의 작품을 1층 남도화관에서 3월 말까지 전시한다.

추사 김정희가 극찬했던 예재사 소치 허련 화백부터 한국화의 대가로서 강인한 작가정신의 소유자인 백포 박남배 화백, 제2의 백남준이라 불리며 옛 명화를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해 디지털화하는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화백, 남도 대표 여성 중진 이매리 화백 등 남도 대가 13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관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이용 시 방역패스를 적용하므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따라야 한다. 1층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남도작가전' 주제의 도서 전시도 함께 열린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실용화 속도

노지 해상양식장치 등 기술 이전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최근 어업 현장 중심 연구개발 추진으로 수산양식 어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지식재산권의 실용화와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전한 기술은 '노지양식용 해상양식장치'와 '수산양식 바이오 가로수장장치' 2건으로, 각각 (사)진도군전복협회와 (주)링크웍스이 혜택을 받았다.

노지 양식용 해상양식장치는 해삼의 먹이로 이용하는 부작 미세조류와 해삼의 서식공간을 증가시켜 양식 시설비와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량을 높이는 장치다. (사)진도군전복협회는 소속 회원 350명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후 시험양식을 할 계

획이다. 수산식품 바이오가로수장치는 수산식품이 광합성해 생장하는 장치다. 미세먼지 제거 및 이산화탄소 고정, 산소 배출 기능을 보유한 제품으로 (주)링크웍스는 이 기술을 이용해 올해 시제품 생산과 검증을 거쳐 본격적으로 상품화할 예정이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처음 김종자(해풍 1호) 기술이전을 협약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이전 특허 기술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해 기술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업 현장과 산업체 수요에 맞는 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